

## 養護教師에 바란다

李 璟 淑

서울대 保健大學院 教授·哲博

우리나라 학교 보건사업은 문교부 소관인 학교 보건 계획 중의 일부로서, 각급 학교 수준에서 학교 단위로 수행되고 있다. 학교 보건 계획 중에서도 학교 보건사업이 학생 인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뜻에서 극히 중요시 되고 있다.

이 학교 보건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을 것이나, 보건의료 개념과 기술을 동원하여 교육환경에서 활동하는 양호교사의 역할이 특별히 중요시 된다는 것은, 양호교사가 학교 보건적 전문가 중 유일한 전임 종사자일 뿐만 아니라,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지식, 지역사회 자원의 이용 기술 그리고 보건의료 활동에 필수적인 임상기술 등을 가진 간호원이라는 배경 때문인 것이다. 학교 보건 사업의 대상은 6세부터 18세까지의 가장 건강한 연령층에 해당되는 인구인 동시에, 전 생애 기간을 통하여 성장과 발달의 속도가 가장 빠른 시기에 처해 있는 학생 인구이다. 다시 말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또는 정서적으로 가장 변화가 많은 즉, 적응능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로 하는 인구인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내적 및 외적 환경에 적응이 필요한 학생 인구를 대상으로, 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전임 양호교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상승일로에 있고 따라서 책임이나 기능한계가 점차적으로 팽대되어 가고 있다. 최근 공중보건 사업에서 건강개념의 변화에 따라 건강사업 전달체계 개선이 문제의 초점이 되고 있다. 특히 하향식이던 공중보건 사업을 상향식인 지역사회 건강사업 또는 의료사업으로 전환시키려는 의도에서, 각 보건의료계 전문직 학교에서는, 지역사회 의학이다 또는 지역사회 건강간호다 하는 교육사업이 전개되면서, 전통적 보건사업에 개념상의 혁신을 기하려는 운동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개개인의 건강을 기본인권에 연관지으므로써, 건강관리와 유지 및 증진에 대한 당연성이 시사

되고 있다. 이러한 차제에 일천만에 가까운 학생 인구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전임으로 종사하고 있는 양호교사들에게 기대하고 싶은 것 몇 가지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양호교사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교부 소속이며, 학교 보건 전문가 중 유일의 전임 실무자이다. 그러므로 전문기술 면이나 새로운 지식 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질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싶다. 또한 양호교사가 전문직 교육을 받을 때 교직과 등 교육학 분야 공부를 이수했다 할지라도 학교 환경에서는 주어진 임무가 양호 활동임으로, 진정한 뜻에서의 교직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학교 보건에 대한 사명감이 희박하면 교직자 사이에서 열등의식에 사로 잡히기 쉽고 이 열등의식을 보상하기 위한 방법으로 결근한 교사의 일과를 메꾸어 주기 위하여 보건교육 이외의 학습보도를 보충수업이라는 명목으로 자진한다든가, 그러한 요구에 순순히 응한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즉, 양호교사는 학교라는 특수 환경에서 간호원으로서 종사해야 되는 전문직업적 특성 때문에 소속감(Professional Identity) 문제에 혼선을 이르기 쉽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데 있어서는 양호교사의 기능과 책임을 아래에 열거된 영역 별로 잘 묘사해 놓고, 학교 보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적극 활동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학교 보건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양호교사가 기여할 수 있는 면에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전임 보건전문가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교사로서의 열등의식, 전문직업인으로서의 迷兒같은 불안감은 학교 보건 사업의 목적을 파악하고, 양호교사 활동에 대한 의의를 발견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두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양호교사의 기능이나 책임이 급격히 변화되는 학생 인구의 건

강요구에 따라 함께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사업 전달방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양호교사는 지역사회 건강사업의 전반적인 면에 대해서 항상 그 움직임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됨은 물론 국내외의 양호교사 활동추세에 민감해야 된다.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인구문제를 가장 실감하게 되는 것은 학교기관이라 할 수 있다. 학령기 아동 인구의 증가는 학교 시설의 확장문제 뿐만 아니라 각종 건강문제를 야기시킴으로써, 학교 보건 사업의 양적 질적 면에 확장과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이에 대응책으로서는 전통적 양호교사 활동을 포함한 기존 학교 보건 계획으로서는 그 요구 충족이나 문제 해결이 도저히 불가능하게 되었음으로, 어떤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선진국에서는 학교 간호진료사 제도가 탄생했으며 이것은 간호전문직의 영역개발에 큰 의의 있는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 탄생의 의도는 학생들의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양호교사의 능력을 향상 시킨다는 데 있다 한다. 학교 간호진료사의 자격은 양호교사로서 4개월 이상의 진료활동 교육을 받은 자로서, 전통적 의사의 업무를 포함한 진료활동은 물론 학생들의 난청으로 인한 학습지연 문제, 신체활동 불능 학생문제, 문제아, 지진아 문제 등 광범위한 문제를 두고, 학습과 건강에의 교양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아들은 교외의 진료혜택을 받기 어렵고, 혹시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추후 관리가 실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간호진료사의 대두가 각광을 받는다는 것이다. 전통적 양호교사에 비해서, 학교 간호진료사의 경우, 간호원 독자적인 기능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학생들의 건강 상태 감정을 위해서 보다 적은 숫자의 학생을 교외에게 의뢰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문제 해결에 질적 및 양적으로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문제있는 학부모와 만나 건강상담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건강관리의 계속성 즉, 진료 면과 건강증진 면을 동시에 추진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한다. 간호진료사 제도의 이용은 다시 말해서 넓게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좁게는 학교를 위해서, 경제적 가치와 동시에 의료적 가치

가 결비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탄생은 전체적 지역사회 인구의 건강사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름길 혹은 필수적인 전달 체계에 초점을 둔 개선안이 속출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지역사회 건강사업 전반에 걸쳐 어떠한 움직임이 있느냐에 대한 민감성이 학교 보건사업에 이와 같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양호교사는 학교 환경이라는 특수(?) 지역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一員으로서, 보건 전문직의 일원으로서, 학교 교직원들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이 부여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되겠다. 안이한 직장생활만을 회구하는 뜻에서 양호교사를 지망했다면 그 당사자나 학교당국 모두 한 번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세번째로 양호교사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개인적 발달과 전문직업적 성장을 위해서, 계속 교육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다. 개인적 발달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급격히 변화되는 이 사회에서 적응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자연도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전문직업적 성장을 위해서, 역시 계속 교육의 중요성은 재언의 필요가 없다. 특히 학교 사회에 있어서의 양호교사는 유일한 전임 보건전문가임으로, 많은 경우에 보건전문직종 전부를 대변하게 된다. 그러므로 전문지식의 부족이나, 건강사업의 현 추세에 대한 조망결여는 전문인으로서 신임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신의 기본전문직 분야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별개의 눈과 같이 좁은 조망의 눈이 필요하며, 보건전문직 분야의 전반적인 발전과 교육환경에서의 적용을 위해서, 새와 같은 넓은 조망의 눈이 필요하다. 변화라는 강한 물결 속에 빠지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태도 보다 그 세찬 물결을 어떻게 활용하면 발전이라는 彼岸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긍정적인 참여의식과 연구태도가 정적 현 학교 보건계획을 보다 바람직한 동적 사업으로 전환시키는데 있어서, 양호교사가 지녀야 할 것으로 믿는다. 상당히 차원이 높은 기대인 것 같으나 노력하면 도달한다는 신념을 가지면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을 것이다.